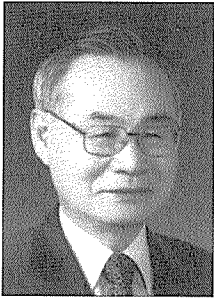




시론



한 인 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목운문화재단 이사장

오는 2008년 8월 15일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감격스러운 우리 정부의 환갑날을 기념하고 축하 한다는 뜻에서 우리 영양사료 분야에서는 『한국영양사료산업60년사』라는 책을 펴내려고 한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84년에 필자가 조흥래 박사와 공동 저자가 되어 『한국사료산업발전사』라는 책을 이미 간행한바 있다. 말하자면 우리 사료산업 발전사 60년 중 전반부의 역사를 이미 정리·간행한바 있다는 것이다.

그 후 3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료산업은 실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벌써 몇 해 전에 배합사료산업은 그 생산량 면에서 1,500만톤의 시대를 열었고 단미사료 산업과 동물첨가제산업도 바이오산업화 내지 첨단산업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품목에 따라서는 상당량 외국으로 수출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경하스러운 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배합사료산업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중국 등으로 진출하여 벌써 해외 공장의 수가 국내 공장의 수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미사료와 동물약품산업 역시 외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중이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사료산업은 다른 공산품 제조업처럼 외국으로 뺏어 나가게 되어 이른바 국제농업시대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4년에 발간한바 있는 『한국사료산업발전사』를 개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분야 지도자들 사이에 정부수립 60주년 기념 『한국영양사료산업60년사』를 편찬·발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이 없으나 분야를 애지중지하는 유지인사들이 만

21세기를 맞이한 『한국사료산업발전사』

난을 무릅쓰고 이 책을 간행하여 우리나라에 바치자는 것이다. 우리 사료산업은 농업분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선진화된 분야라는 것을 널리 알림으로써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자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먼저 사진으로 본 우리나라 사료산업 60년사를 일별한다. 제1장에서는 사료산업의 산업적 중요성과 연대별 주요업무추진 내역을 다루고, 제2장에서는 사료행정기구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한자료를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영양사료분야 교육기관의 역사와 업적을 개관하고 아울러 학회 및 연구회 등 산학협동의 실적을 수록한다. 제4장에서는 사료분야 단체의 역사와 업적을, 제5장에서는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발전사를, 제6장에서는 한국사료산업의 해외진출내역에 관한 사료를 정리한다. 아울러 제7장에서는 단미사료제조업체의 발전사를 다루려 한다. 이 부분의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단미사료산업을 개척하고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창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유동준 회장이 직접 편집진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제8장에서는 동물약품제조업체의 역사를 편집하고, 제9장에서는 각계 각층에서 활동 중인 사료산업의 주역들을 대상으로 회고담을 수집하고 좌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야사도 수록하게 된다. 부록에는 영양사료산업분야에서 현신한 전·현직 주요 인명록과 영양사료분야 연구논문제목 등을 수록할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 보아야 할 일은 우리나라 영양사료분야 연구수준은 그 내용이나 양면에서 이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양돈영양과 사료가공기술 분야는 일본과 중국도 미쳐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사료산업이 이렇게 성장·발전한 것은 산·학·연·관에 속한 모든 인사들이 땀 흘려 노력한 보람이오 승리가 아닌가 싶다. 최근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다, WTO 체제다, 하면서, 더욱이 오늘날의 한국농업은 여러 나라와의 FTA협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그 생존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의 판결로 새금금 방조제 사업이 계속되게 된 것은 우리의 작은 기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필자로선 이 책의 간행사업이 분야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자못 숙연해 지기도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영양사료산업을 비롯해서 축산업과 농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